



이 주 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 발전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존경하는 엔크사이칸(Enksaikhan) 의장님, 아마노 유키야((Amano Yukiya)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오늘 제 54차 IAEA 총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 54차 IAEA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엔크사이칸(Enksaikhan) 의장님께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출중한 경력과 리더십은 이번 총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IAEA의 내실 있는 성장과 의미 있는 활동을 견인하고 계신 아마노 유키야(Amano Yukiya) 사무총장님의 공로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총회를 통해 스와질랜드의 IAEA 신규 가입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번영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원자력 안전 의무 충실

의장님,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 해결과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에 놓여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은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열쇠로, 대안이 아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의 무무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또는 원전의 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 세계에서 12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이 착수되어, 1987년 이후 원전 신규 건설이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300기 이상의 원전이 신규 도입되거나 건설 계획 중일 정도라고 하니 21세기의 ‘원자력 르네상스’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원자력 르네상스는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전의 수 확대 뿐 아니라 동시에 법, 안전 규제, 인적 자원, 방호 등 안전에 관한 인프라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국가도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핵투명성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관한 IAEA 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은 물론,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원전 수출국도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원전을 공급해야 하며, 도입국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책임을 갖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원전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된 바, 원전 도입국에게 기술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시스템과 제도를 철저히 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국으로서 책무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6월 원전 신규 도입국의 안전 규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규제 기준 개발, 안전 심사와 검사 지원, 규제요원 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규제지원패키지(IRISS)’를 개발한 바 있으며, 도입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원자력 안전에 대한 IAE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IAEA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전 도입국들의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 금년부터 IAEA EBP사업 기여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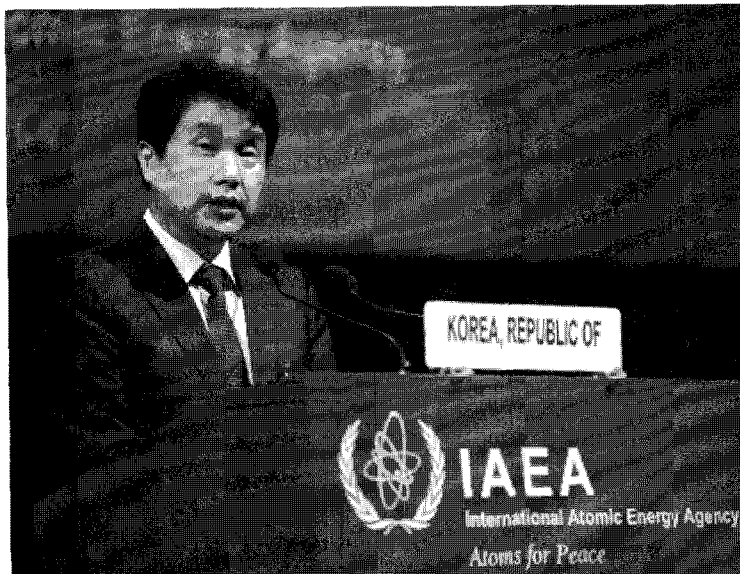
한국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가간 원자력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의장님,

깨끗하고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통한 산업, 경제 발전뿐 아니라 환경 보존, 물 공급, 의료 및 식량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

인류문명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해 왔으며,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IAEA 및 회원국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이끌어 온 IAEA의 숭고한 노력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니다.

* 빈곤, 기아 퇴치 등 8개 인류 난제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2000년 UN에서 만장일치 통과

그러나 이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발전, 비발전 분야 할 것 없이 원자력 에너지에서 비롯된 혜택이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 복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 IAEA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원자력 의학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로, 기간 암 치료 및 질병 진단, 방사선 의학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회원국의 인도적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IAEA의 기술 협력 사업은 회원국의 원자력 역량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지난 1961년 이후 기술 협력 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IAEA 제54차 정기총회 - 기조 연설

올해부터 한국은 수혜국 지위를 마감하고, 이제는 순수 공여국으로서 기술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간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해 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방사선 이용에 관한 연구 개발과 국제적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PACT 활동을 민간 기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국의 방사선 의료진을 파견하여 강의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아울러 개도국 의료진을 초청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IAEA의 PACT 등 회원국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IAEA 기술 협력 사업 특별 기여금으로 IAEA의 개도국의 방사선 이용 증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

의장님,

전 세계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라 핵비확산 및 안전 조치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핵확산, 안전 조치 불이행, 민감 핵물질 불법 거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리즘 우려 증가 등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과 추가 의정서의 보편화 및 준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년에는 추가의정서 발효국이 100개국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이와 같은 추가 의정서 가입국 숫자의 지속적 증가는 안전조치 체제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IAEA 회원국들이 전면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가입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강력히 지지해왔으며, 모든 관련 국제 체제에 가입하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많은 국가들이 원전 시설을 추가 건설하거나 새로이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번 회의에서 조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앞으로 핵안보 관련 국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1년 세계 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개최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IAEA와 여타 국제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핵안보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약속하셨듯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2014년까지 설립하여, 국제 사회에 핵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양질의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 공조 강화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촉구

의장님,

북핵 및 이란 핵 문제 등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넘어서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금년 5월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한 점을 강조코자 합니다.

한국은 국제 사회가 작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상의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온 점을 평가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등 비핵화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포



IAEA 본부

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하루 속히 진지한 자세로 안보리 결의 의무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NPT체제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IAE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IAEA가 하루 속히 감시·검증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 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IAEA 회원국들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의장님과 대표단 여러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IAEA 및 회원국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이끌어 온 IAEA의 숭고한 노력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안전성, 신뢰성, 평화적 이용이 보장되는 원자력 발전이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IAEA가 앞으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점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엔크사이칸 의장님의 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 54차 IAEA 총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